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2 AUTUMN



Care & Love



Medical Essay

계속되는 가슴쓰림 위식도역류질환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 부정맥 신호일수도 있어요
투석환자의 생명줄, 투석혈관
몸 속 시한폭탄 대동맥 질환, 정기 CT검사로 예방하기
소아청소년 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철 결핍'

윤기영 교수 · 위장관외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2 AUTUMN

발행인 오경승

발행일 2022년 9월

편집인 옥철호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홍보협력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T. 051-990-3700~2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읽을거리와 건강정보를 담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오니 주위 분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라며, 홈페이지(www.kosinmed.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보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에 관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실(051-990-3700~2)로 연락해 주십시오.

Contents

Kosin Spirit

04 산 자의 하나님 김영대 목사·원목실장

06 ‘사랑받으라’가 아니라 ‘사랑하라’여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이정현 교수·소아청소년과

08 환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은 항암제보다 더 강력하다
신동훈 교수·간담도췌장외과·이식외과

Medical Essay

11 계속되는 가슴쓰림 위식도역류질환 김성은 교수·소화기내과

14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 부정맥 신호일수도 있어요 임성일 교수·심장내과

16 투석환자의 생명줄, 투석혈관 조지훈 교수·간담도췌장외과·이식외과

18 몸 속 시한폭탄 대동맥 질환, 정기 CT검사로 예방하기 이해영 교수·흉부외과

20 소아청소년 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철 결핍’ 공섭김 교수·소아청소년과

Culture & Life

22 하늘과 구름과 억새꽃 그리고 바이올린...천황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26 목수의 딸 김희자·수필가

29 원목실 추천도서

Kosin Inside

30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32 고신's 스토리 구유진 기자·기독교보

34 나의 하나님 김혜민

36 포커스뷰

Donation

42 진료시간표

46 KOSin 사랑인

산 자의 하나님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 상선약수(上善若水)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上善) 물처럼 사는 것(若水)이란 뜻입니다. 공을 세워 자신을 자랑하고, 남들 위에 군림이 일반화된 시대에, 물처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음을 지향합니다. 높은 곳을 지향하며, 하나님과 대결하고, 하나님까지 정복하고자 했던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이었지만, 찾아오는 재난과 재해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불행을 원치 않으면서도, 생명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만물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주어진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지 못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함이 종교의 기원입니다.

신앙인은 결코 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목적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종교로는, 참된 인간의 의미,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으로만 족하는 삶을 포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덜 집중할 때,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고집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과 세계관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고, 참됨을 알지만,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모세의 수훈법(신 25:5-10)을 언급하면서, 일곱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막12:23)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7형제들과 결혼을 했는데,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우리들도 삶에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재난과 재앙이 임

합니다. 범죄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며,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주는 질문에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막12:24)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곡해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한정해서,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만에 살아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蘇生)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을 뿐입니다.

아이로의 딸이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은, 다시 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별세를 논의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논의하며,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존재입니다. 죄성으로 죽은 운명에 처해진, 그 인생의 연장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죽음이고, 태어나면서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막12:27)”. 사망의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상태,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산 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입은 존재입니다. 사망과 고난과 역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굴곡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생명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같은 권능, 같은 성품으로 이 땅을 삽니다.

산 자의 한 활동으로, ‘차 한 잔의 행복’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병원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임재인 복음가족들 또한 이 병원의 주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복음병원을 세워 나가시기에,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가 복음병원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하루에 차 한 잔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내가 아버지의 아들됨을 선포하고, 내일의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할 복음병원의 밑그림이 되고자 합니다. 복음병원은 산 자들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살며, 사역하는 복음가족을 기대합니다. ✚

‘사랑받으라’가 아닌 ‘사랑하라’여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이정현 교수 · 소아청소년과



제가 어렸을 때, 글자를 익히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성경구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였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내용 중 좋은 한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거나 책갈피로 만들어 쓰거나 하는 교회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이죠.

그렇게 접한 사랑은 참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제 마음에 자리 잡았지만, ‘사랑’을 ‘좋아하는 것(호감)’과 비슷한 뜻으로 이해한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이후 세월이 지나 또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었는데, 여전히 사랑을 호감이라고 생각한 저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 이후 교회에서 사랑과 관련된 고린도전서 13장 설교 말씀을 여러 차례 들으며 비로소 성경 말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며,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어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

레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4-7)”

그런데 ‘사랑’에 대한 저의 고민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실천하기가 참 어려웠으니까요. 언젠가 지금은 은퇴하신, 저의 스승이신 교수님 댁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실에 장기려 박사님께서 붓글씨로 써서 선물로 주신 고린도전서 13장이 액자로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의 의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장기려 박사님께서 한 자 한 자 정성들여 쓰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장기려 박사님께서 1974년 8월에 쓰신 <부산모임> 제43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세계는 나의 사랑하는 곳에 있다. 그것은 나의 영원한 왕국이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박사님의 삶에서 우러나온 것이기에 제 마음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 많으셨던 장기



려 박사님도 사랑 받지 못해서 슬펐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장기려 박사님께서 1941년 평양 기흥병원에 취직해 계실 때, 동료들의 모함을 받아 고독을 느낀 때가 있으셨는데,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셨고, 그 일이 지나간 뒤에는 장기려 박사를 오해했던 친구들과 다시 친해졌고, 장기려 박사를 멸시했던 자들이 존경하게 되었고, 또 내세가 더 확신되어졌다고 회고하셨지요(<부산모임> 제79호, 1980년 12월).

병원 6동 로비를 지나 3동으로 갈 때마다 낮은 곳에 위치한 장기려 박사님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 최근에 장기려 박사가 하셨던 말씀과 함께 다시 “사랑”에 대해 묵상할 기회가 있었고,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 ‘하라’가 아닌 ‘받으라’고 하셨다면 어쩔 뻔 했나? 그 사랑을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겠지만, 설사 내가 사랑 받지 못한다 해도,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가?” 라고 말합니다.

장기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랑받는 것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한 사랑하는 삶”의 경지가 어디쯤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곳까지 꼭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사랑받는 것에 목마른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

환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은 항암제보다 더 강력하다



신동훈 교수 · 간담도췌장외과 이식외과



“언젠가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고는 해도 하루 25시간을 일할 수는 없다. 일한다고 죽지도 않는다’ 아무리 바빠도 그 순간이 언젠가는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힘들게 느껴지는 것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겠지요.”

1982년에 고신대학교에 입학해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인턴까지 했다. 군 생활 3년을 빼면 내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낸 셈이다. 전공으로 간담도췌장외과를 선택할 무렵은 위, 위장관, 대장항문 외과의 개념이 서서히 생겨나던 시기였다.

당시는 일반외과 내에서 다양한 환자를 다루고 있었고, 이제 막 각 파트의 구분이 이뤄져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복음병원에서 간이식 첫 케이스가 있었다.

나는 그때 아직 군인 신분이었지만, 운 좋게도 수술에 조수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간담도췌장 쪽에 남게 되었다.

이식에 관한 부분은 지방이수도관에 비해 늦게 자리잡은 것이 사실이다. 이식 수술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수술에 동원될 많은 인력, 무균실을 위한 공간, 병원 수익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여러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고신대병원 간이식팀은 2014년 첫 생체간이식 수술을 성공한 이후, 2016년에는 부산지역 최초로 혈액형부적합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고 현재까지 70례 가까운 간이식수술을 성공시켰다.

장기이식센터·장기이식연구소를 2020년 6월 개소하고, 신장·간이식을 중심으로 활발한 이식 수술과 연구 성과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병원의 수준이 낮을 거라는 편견이 남아있어 일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세상을 떠나는 환자를 자주 보게 된다. 누구라도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화도 나고 서러울 텐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이가 있다.

자기 불편을 호소하는 대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의무를 놓지 않는 것이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끝까지 인간성을 지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환자를 보며 만문하곤 한다. 나도 정말 힘들 때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하는.

오래 전 동향인 환자를 만났을 때가 그랬다. 간암 수술을 두 번, 척수에 전이가 돼 재수술까지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지 2년 가까이 된 환자였다. 그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대학생인 두 아이의 취업 걱정을 했다. 자식들 역시 부모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기에 힘든 순간이었음에도 참 행복한 모습으로 기억된다.

비록 3년이 못되어 세상을 떠나셨지만 늘 자기 아픔보다는 자식 걱정이 앞선 분이였다.

처음 의사가 될 때는 의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보다 무슨 일에도 성실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컸다. 행운인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장기려 박사님께서 계셨던 곳 이어서, 적어도 그분의 행동과 자세를 따라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환자를 대한다. 환자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자 노력하고 편하게 대해주려고 애쓴다. 아파서 병원에 온 사람들이니 역지사지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 한다.

장기려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건 나와 같은 의사뿐만이 아니다. 복음병원은 사립병원임에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의료 보호 환자들의 비율이 높는데, 입원하는데 제한도 없고 다가서기 쉬운 이미지를 지녔다.

병원 직원들도 입원 절차나 서류 작성에 불이익과 불편



이 없도록 돕는다. 이 또한 분명 장 박사님의 정신이 스며 들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은연중 무형으로 남아 있는 장 박사님의 뜨거운 마음이 가 닿은 것이 아닐까?

나는 의사다. 의사의 임무는 삶에서 암처럼 힘든 병을 만난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가야하는지를 곁에서 돕는 것이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로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 참 뿌듯하다.

‘환자가 나 아닌 다른 의사에게 갔더라면 더 좋은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 늘 있지만,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나은 실력을 지닌 의사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주변을 살펴보면 기계적으로 자기 지식만 고집하는 의사들이 많다. 서로 만나는 일이 별로 없고, 모자라는 지식에 대해 다른이의 의견을 구하거나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지 못한다.

나는 간암 수술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간암의 세포 현미경 보는 방법은 잘 모른다. 만약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떨까? 아마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미래의 좋은 의사는 실력뿐만 아니라 소통과 화합을 아는 의사여야 한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초대원장 장기려 박사님은 국내 간암절제수술 개척자이자 외과 수술 발전의 토대를 쌓으신 분입니다. 1959년 간암 환자 대량절제술에 성공하셨던 만큼 수술에 대한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분 밑에서 배운 선생님들이 계속 이 병원에서 일하며 많은 사례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복음병원 출신 외과의사라면 수술을 잘 할 거라는 신뢰가 있을 정도였지요.”

계속되는 가슴쓰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법은?

 김성은 교수 · 소화기내과



위식도역류질환은 가슴쓰림이나 위산 역류 등 전형적인 증상부터 다양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흔한 질환으로 취급하지만 만성적이고 자주 재발하기 때문에 환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위식도역류질환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전 세계 18개국 44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위식도역류질환에 대한 회의를 열었는데, 그 때 정의하기를 위식도 역류질환이란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일으키는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을 일으킨 경우로 하였습니다.

위식도역류질환이 역류성식도염인가

위식도역류질환과 역류성식도염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식도역류질환에는 내시경에서 위식도접합부 점막의 이상이 있는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환자 분들의 증상은 있으나 내시경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는 비미란성 역류질환도 있습니다.

유병률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위식도 역류질환 유병률은 2~3%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그 유병률은 10~12%까지도 보고되어, 우리나라에서 위식도역류질환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상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슴쓰림이나 위산 역류 등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도 있지만, 만성기침, 역류성 후두염, 천식, 치아 미란 등의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역류로 인해 위식도접합부가 좁아지는 소화성 협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위식도접합부의 편평 상피로 된 정상적인 식도 점막이 탈락되고 원주상피로 변한 바렛식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렛식도는 식도의 선암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 기준

전형적인 위식도역류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내시경을 시행하기 전에, 2주 정도 양성자펌프억제제를 투여하여 증상의 호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위식도역류질환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내시경 검사의 접근성이 좋은 경우에는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서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위식도역류질환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내시경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24시간 보행성 식도임피던스산도검사를 통해 위식도역류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보행성 식도임피던스산도검사는 위식도역류질환 진단의 Gold standard로 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임상에서는 종종 한국형 위식도역류질환 설문지가 위식도역류질환의 진단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래의 항목에서 8점 이상일 경우 위식도역류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위식도 역류 질환 설문지	0일	1일	2-3일	4-7일
얼마나 자주 가슴뼈(흉골) 안쪽의 가슴 쓰림이나 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까?	0	1	2	3
얼마나 자주 위내용물(위산이나 음식물)이 목구멍까지나 입까지 역류하는 증상(산 역류)이 있었습니까?	0	1	2	3

얼마나 자주 상복부 중앙(명치)에 통증이 있었습니까?	3	2	1	0
얼마나 자주 메스꺼움(구역)이 있었습니까?	3	2	1	0
얼마나 자주 가슴 쓰림이나 산 역류로 인해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0	1	2	3
얼마나 자주 가슴 쓰림이나 산 역류로 인하여 의사 처방 없이 추가적인 약물(예를 들어 미란타, 알마겔과 같은 제산제)을 복용하였습니까?	0	1	2	3

대부분의 경우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양성자펌프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라고 하여 또 다른 기전으로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물로 호전되지 않는 환자들 의 경우에는 외과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내시경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치료방법

과체중이나 비만이신 분들에서는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을 호전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잘 때 베개나 머리 쪽의 침대를 높이는 것도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위식도역류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 이라면 식후에 바로 눕는 자세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 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역시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은 교수 | 소화기내과
전문진료분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질환 / 위암 / 식도암 / 소화기질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 부정맥 신호일수도 있어요.

 임성일 교수 · 심장내과



부정맥은 말 그대로 바르지 않은 맥박을 말합니다. 정상 맥박을 기준으로 60회 미만의 낮은 맥박인 서맥은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100회 이상 빨리 뛰면 빈맥이라 합니다. 빈맥은 위치에 따라 돌연사와 뇌졸중과 같은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부정맥 증상

부정맥의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약간씩 증상이 다르지만 대부분 두근거림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시고, 심실조기박동이나 심방조기박동과 같은 조기박동은 마치 맥이 빠지는 경우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맥박이 매우 느려지는 서맥성 부정맥들은 맥박이 너무 느리다고 호소하시거나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맥의 원인

부정맥의 기전은 크게 자동능 항진, 방아쇠 효과, 회로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능 항진이나 방아쇠 효과에 의한 부정맥의 경우, 없어야 할 맥박이 갑자기 만들어질 상황, 예를 들면 스트레스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서 잘 발생하게 되며, 심장의 섬유화 등에 의해 전달되던 전기 파동이 깨지면서 부정맥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회로에 의한 부정맥은 선천적으로 없어야 할 회로가 심장세포의 전기전달시기 즉 불응기가 풀리는 시기 맞물려 전기신호가 회로를 형성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근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회로에 의한 심실성 빈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병원 검사

가장 중요하고 고식적인 검사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전 24시간~48시간 동안 몸에 부착하는 활동 심전도인 홀터 모니터를 통해 진단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패치형태의 심전도모니터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패치형태의 심전도 모니터링검사가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고 여러 회사의 제품이 있습니다. 또한 각 제품에 따라 실시간 검사나 AI를 통한 분석 등 여러 가지 특징점들이 있습니다.

자가진단 방법

가장 간단한 것은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있다면 팔목을 손가락으로 만져서 맥박이 빠른지, 느린지,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 최근에는 smart watch 등의 앱을 통해서 부정맥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유전적 원인

급사중후군의 원인 중 브루가다 증후군, 긴 QT 증후군과 같은 유전적 소인이 있는 부정맥도 있고, 가족성 심방세동, 선천성 방실차단 증후군도 매우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

대부분 부정맥의 치료는 약물치료로 시작됩니다. 물론 빠른 맥박인 빈맥성 부정맥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빈맥성 부정맥을 약물치료 함에도 지속적인 재발이 발생하는 경우 고주파열이나 냉각풍선 등의 에너지를 이용한 카테터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맥성 부정맥중 심실빈맥, 심실세동과 같은 급사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삽입형 제세동기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서맥성 부정맥의 경우 심한 경우 영구형 심박동기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

약물이 아무리 부정맥약이라고 해도 부정맥에만 약물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맥박을 만드는 동 (sinus) 과 방실점합부, 그리고 심장의 전기줄에 해당하는 his purkinje fiber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맥성 부정맥 발생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 부정맥약 자체가 부정맥을 간혹 유발하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

부정맥 예방 운동은 따로 없는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근력운동을 통해 혈관병 예방을 통한 부정맥 예방효과는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



임성일 교수 | 심장내과
전문진료분야
부정맥 / 급사 및 실신 / 허혈성 심질환 / 심부전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외래	
오후			외래		

투석환자의 생명줄, 투석혈관 바로알기

 **조지훈** 교수 · 간담도췌장외과·이식외과

신장은 우리말로 ‘콩팥’이라고 불리며 혈액속의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콩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요독증과 같은 치명적인 건강 악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때 치료가 혈액투석입니다. 몸에서 혈액을 빼내 투석 기계로 노폐물을 정화시킨 다음 다시 몸 안으로 넣어주는 치료입니다. 투석 환자에게는 투석혈관이 생명줄과도 같은 셈입니다.

국내 투석 치료 환자

인구 고령화와 당뇨 환자 증가로 혈액투석을 받는 말기 신부전 환자 수는 매년 약 5%씩 증가해 왔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혈액투석 환자 수는 11만7천명입니다.

투석혈관 조성

먼저 팔 혈관에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혈관상태에 따라서 자가혈관을 사용할지, 인공혈관을 만들지 결정합니다. 수술할 때는 2.3mm정도 되는 혈관을 매우 가는 실로 꿰매서 연결을 합니다. 몇 배로 크게 보이는 확대경을 쓰 수술하게 됩니다.

자가혈관과 인조혈관을 조성하는 기준

자가혈관이 크고 괜찮으면 가능한 자가혈관을 이용해서 투석혈관을 만듭니다. 자가혈관과 비교해서 인조혈관이 인공물질이

기 때문에 감염율이 높고 더 잘 막힙니다. 평균적으로 인조혈관은 2,3년 자가혈관은 5년 정도 사용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차이

겉으로 보기에 팔에 하느냐 배에 하느냐 투석부위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납니다. 먼저 혈액투석은 팔에 만든 투석혈관에 바늘을 찔러서 투석합니다. 실제로 환자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의료진에게 맡기고 투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석관이 피부 안에 있기 때문에 목욕이나 수영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병원에 자주 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가고 한번가면 4시간정도 투석을 받기 때문에 투석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하시는 분은 지장을 받을 수 있고 멀리 여행을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행지에 내가 투석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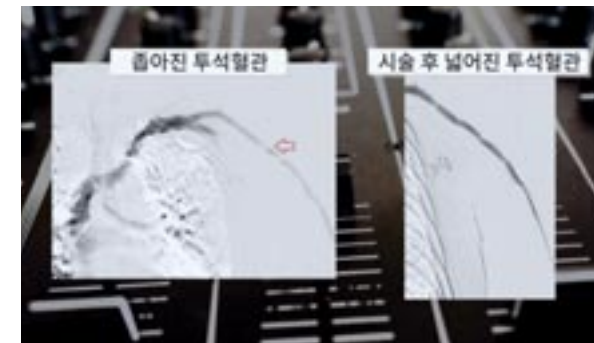
복막투석은 배에 삽입한 투석관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투석하는데 하루에 4번 정도 합니다. 복막액을 관에 연결해서 배안으로 넣었다가 빼내는 작업인데 한번에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투석관이 배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으며 수영, 목욕이 힘듭니다.

정리하면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의료진에게 편하게 맡길 수 있고, 복막투석은 집에서 편한 시간에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환자의 나이, 직장생활, 개인사정, 심장병, 당뇨병 같은 동반질환을 고려해서 전문의와 상의 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선택

혈액투석은 팔에 혈관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팔을 다쳤거나 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높은 압력과 빠른 속도로 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각한 심장질환이 있어도 혈액투석이 안됩니다. 복막투석은 배안에 투석관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위, 소장, 대장 같이 배수술을 한 경우에 유착이 심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고려해서 환자가 선택을 하겠지만 전문의와 상의 후 최종 결정

하면 되겠습니다.



투석혈관 유지

저는 중고차에 비유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석혈관은 두꺼워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혈전이 생기고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혈전제거술, 풍선확장술과 같은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 잘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A/S 받아가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투석혈관이 중고차와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평균적으로 인조혈관은 2,3년, 자가혈관은 5년 정도 사용한다고 보고되어 있지만 관리를 잘하면 10년 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투석혈관 부작용

투석혈관으로 피가 많이 가게 되고 수술 전보다 손끝으로 가는 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을 도류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환자분들 마다 그 정도가 다양합니다. 증상이 없는 분도 있고 증

상이 가벼운 분은 손이 시리거나 쥐가 나는 것처럼 저릴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손가락에 염증과 상처가 생기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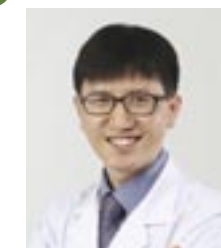
투석혈관 부위에 온찜질

도움이 됩니다. 투석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투석혈관을 오래 쓸 수 있게 해줍니다. 협착을 방지해줘서 좁아지는 것과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미지근한 온도로 따뜻하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야 하는데 집에 있는 핫팩으로 뜨겁게 하면 화상이 발생하고 투석혈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경감각의 저하로 실재로는 많이 뜨거운데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핫팩은 추천하지 않고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혈관을 찜질할 수도 있는데 물수건 찜질은 투석한 날은 하면 안 되고 투석 쉬는 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석 받은 날 하게 되면 바늘 찌른 부위로 물이 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쉬운 물주머니를 사용해서 찜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투석 안 하는 날 15분 정도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주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생활습관

투석을 받는 환자에서 체중조절과 식이요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염분, 수분, 칼륨, 인 등의 섭취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투석환자가 김치, 젓갈, 라면 등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경우 혈압상승, 체중증가, 부종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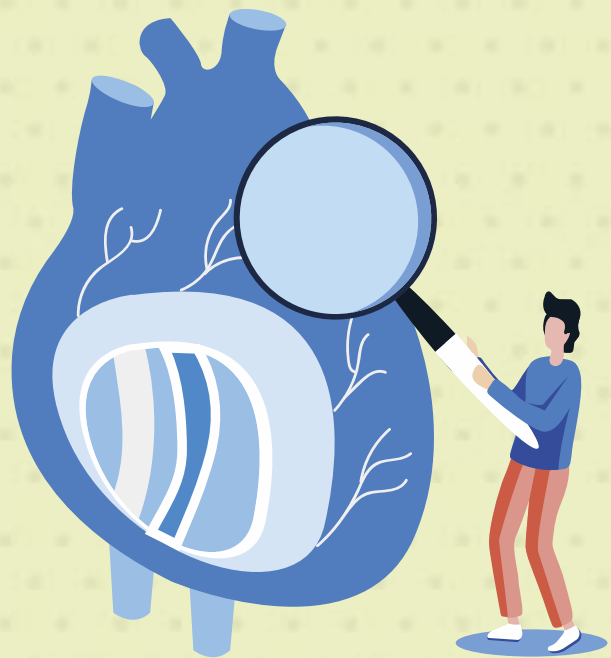


조지훈 교수 | 간담도췌장외과·이식외과
전문진료분야
간 / 담도 / 췌장 / 이식 / 혈관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몸 속 ‘시한폭탄’ 대동맥 질환, 정기 CT검사로 미리 예방하기

 이해영 교수 · 흉부외과



인체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은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중심 혈관이다. 비유하자면 ‘부산~서울 경부고속도로’인 셈이다. 하지만 대동맥에서 발생하는 질환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 그렇기에 남성 A(86) 씨처럼 다른 질병으로 복부 CT를 찍는 과정에서 우연히 대동맥 질환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동맥 질환은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생존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무심코 방치했다가는 대동맥의 갑작스러운 파열로 인해 생명을 잃을 만큼 위험한 질환이다.

대동맥 질환의 종류 및 치료(수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대표적인 것은 ‘대동맥류’와 ‘대동맥박리’ 두 가지다. 전자는 대동맥이 풍선처럼 정상 크기 이상으로 커지며 확장되는 것이고, 후자는 대동맥의 내벽이 찢어지는(벗겨지는) 현상이다. 대동맥류에서 ‘류’는 ‘혹’을 뜻한다. 보통 대동맥은 직경이 2cm 정도인데, 그것이 150% 확장돼 3cm 이상이면 대동맥류 진단을 내리게 된다.

대동맥박리증 또한 대동맥의 내구성이 떨어지면서 대동맥류로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혈관 내 노폐물이 쌓이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죽상동맥경화증을 비롯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신장질환 등이 꼽힌다.

동맥류를 그대로 두면 대동맥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 파열에 이른다. 반드시 파열되기 전에 전문의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동맥이 커지면 혈관 약화로 박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박리가 되면 혈류 자체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허혈성 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

대동맥 질환은 병원의 엑스레이 및 초음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제일 명확한 것은 역시 CT(전산화 단층촬영) 검사이다.

대동맥 질환을 자가진단하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고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흔히 발생하는 복부 대동맥류는 누웠을 때 배꼽 근처에서 박동성 혹이 만져질 경우, 대동맥박리증은 극심한 흉통이 있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CT 검사를 통한 전문의 진료 없이 자가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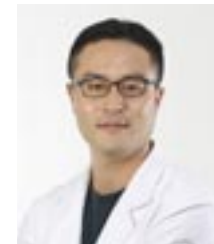
시술 또는 수술 치료는 문제의 대동맥으로 혈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전에는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대체하는 것뿐 아니라 개복 수술 자체가 어렵게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인조혈관인 스텐트를 병변이 있는 대동맥에 덧대주는(삽입하는) 시술이 있기 때문에 개복 없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게 치료할 수 있다. 게다가 시술 후 통증이 거의 없고 식이 및 보행이 가능해 고령 환자들도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개복 수술을 할 경우에는 병변이 있는 대동맥을 잘라내고 인조혈관으로 치환해 준다. 그렇다 해도 수술 부작용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반 혈관수술과 마찬가지로 출혈 및 수술부위 감염 같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남성 환자에게는 성기능 장애가 극히 적은 정도로 생길 수 있다.

대동맥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 및 변비 관리가 중요한 요소이다. 또 적절한 운동과 저염식, 충분한 수분·식이섬유 섭취 절주 비만 방지 등이 필요하다.

근래 젊은층에서 대동맥박리증이 증가하는 것도 고지방·고염식 같은 식습관과 운동 및 수면 부족 비만 고혈압 등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생활요법과 아울러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대동맥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일부 희귀성 유전질환의 경우 대동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이해영 교수 | 흉부외과
전문진료분야
대동맥질환 / 말초혈관질환 / 성인심장질환 / 흉부외상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소아청소년 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철 결핍’

 공섬김 교수 · 소아청소년



소아청소년 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철결핍’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1/3에서 관찰될 정도로 흔하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철 결핍 원인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에서 철 결핍은 주로 철분 섭취 부족과 혈액손실에 의해 발생합니다. 철분 섭취 부족이 발생하는 시기는 6개월에서 24개월인 어린 영유아입니다. 만삭으로 출생한 아기는 생후 3~6개월까지 저장된 철분으로 철분부족이 없으나 6개월 이후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철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 육류를 포함한 이유식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으면 철 결핍이 발생하게 됩니다. 3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단순식이성 철 결핍은 드물며, 만성 실혈이 원인이 됩니다.

초경 이후 여성이라면 1~3년 이후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특히 생리량이 많은 경우가 위험 요소가 됩니다. 드물지만 과도한 우유섭취와 반복적인 코피, 용혈, 기생충 감염, 임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철분이 중요한 이유

철은 체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은 지구상에

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 금속인데요, 이 철이 우리 몸에는 총 3~5g 정도 존재합니다. 철은 전자를 2개 잃은 2가 철과 3개 잃은 3가 철이 모두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매우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철분이 우리 몸에서 분포하고 있는 구성 형태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다양한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초기에 철분부족으로 인한 증상이 생기게 되고, 철분 부족이 악화되면 저장되어있던 철을 쓰다가, 점점 심해지면 헤모글로빈을 만들지 못해 빈혈이 되게 됩니다.

빈혈이 없더라도 철분은 부족해지면, 다양한 효소작용에 문제가 생기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영유아에게서는 발달이 늦어지고 열경련의 빈도가 더 많다는 보고도 있고, 학생들에게 철분제 부족하게 되면 학습능률과 성취도도 좋지 않게 되며 여러 연구에서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철 결핍 증상

철 결핍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식욕이 줄고 잘 먹지 않고 특히 어린 영유아에서 종이나 흙 등을 먹으려고 하는 이식증이 보이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고 잘 보채고 밤중에 잘 깨기도 합니다. 감염이나 염증에도 취약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영유아의 경우 발달이 늦거나 경련의 유발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철 결핍이 악화되어 빈혈이 발생한다면, 창백해 보이고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고 피곤하거나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악화되면 숨찬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혈이 심해지면 심장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

철결핍 치료는 크게 2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충분한 철분 보충과 두 번째는 원인을 찾아 해결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철분 보충은 보통 경구 철분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하루 1~2회로 나누어 충분한 용량을 복용하게 되면 1~2개월 후 빈혈이 호전되고, 이후 2~3개월 더 복용해서 충분히 저장을 시키고 중단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이랑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줄어들어 철분보충의 효과가 없습니다. 일부 경구 섭취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주사제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분 부족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악화와 재발을 막기 위해 중요합니다. 섭취 부족한 환자들은 충분한 철분을 공급하도록 하고 실혈이 있는 경우 원인을 찾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생리의 의한 경우는 적절한 철분 보충을 설명 드립니다

다. 이 중에서 생리량이 많고 평소 멍이 잘 드는 환자들 있는데 이런 경우는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추가 질환은 없는지 평가가 필요하고, 생리기간동안 지혈제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3세 이후 생리와 연관이 없는 철결핍이 발생한 경우 위장관 실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예방법

많은 경우 충분한 철분 섭취로 철 결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철은 크게 헴철과 비헴철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헴철은 근육 등과 함께 고기형태로 존재하는 철이고, 비헴철은 철분 단독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헴철이 흡수율이 좋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헴철과 비헴철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5~6개월 이후의 영유아의 경우 적절한 이유식 진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고기와 함께 다양한 식재료를 통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때 철 결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6월 이후로 이유식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철분제를 예방용법으로 투여하는 것이 이유식 진행과 발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후 연령에서도 골고루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초경이후 여성의 경우 음식을 통한 섭취가 충분하지 않다면, 철분이 포함된 영양제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섬김 교수 | 소아청소년과

전문진료분야

소아혈액중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외래
오후		외래			

하늘과 구름과 억새꽃 그리고…… 바이올린 천황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왜일까? 이맘때쯤이면 풀벌레의 울음이 유독 사무치게 들리는 것은……. 더없이 정다웠다가 절절해지고, 문득문득 끊어졌다가 이어지는 도무지 기늙하기 어려운 그 음률은, 말하자면 내가 아는 바이올린 연주를 닮았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린 곡인 사라사테(Pablo de Sarasate)의 <지코이네르바이젠(Zigeunerweisen op.20)>처럼 사무치게 가슴에 와 닿아서 더 좋다. 여름이 끝남을 아쉬워하는 것인지 가을이 음을 기뻐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리듬과 화려한 기교까지 그 연주곡을 닮았다.

천황산을 찾은 그날은 하늘까지 더해 함께 연주를 했다. 나지막하게 깔려 있던 안개가 걷히자 바람에 흩날리는 구름과 억새꽃의 변화무쌍하고 화려한 반주로 산행 내내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 잔잔하거나 애절하거나 걱정적이거나 하여 하늘과 계절의 변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연주를 들었던 산행이었다.

천황산(1,189m)은 밀양시 산내면과 울주군 상북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주봉은 사자봉이라 부른다. 일제강점기 때 봉은 이름으로 터러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이름 되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자봉을 재약산 주봉으로, 건너편의 재약산을 수미봉으로 부르기도 한다.

산세가 수려하여 가히 삼남금강(三南金剛)이라 불리는 영남알프스의 산중 하나라 할만하다. 정상 일대 서쪽으로는 거대한 암벽을 갖추고 있고, 동북쪽으로는 드넓은 억새평원을 이루고 있어 그 풍경이 장관이다.

바람이 가을 소식을 전한다.

연주의 시작을 알리는 피아노 반주처럼, 배내고개 마루에 올라서자 석남사 골짜기에서 불어온 바람이 안개를 밀어내고 배내골을 향하여 시원하게 불어온다. 바람엽서로 부쳐 온 가을소식. 불현 듯 전해온 소식이라 더 반갑다.

마중 나온 파란 하늘을 따라 능동산을 우회하는 임도로 산행을 시작하자 때마침 불쑥 나타난 햇빛이 눈을 부시게 한다. 시멘트 포장길과 비포장 길이 이어지는 임도는 갖가지 야생화가 만발해 있고 커다란 나무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내리쬐는 한낮의 햇빛은 그저 약간 성가신 동행이라 생각해도 될 듯하다.



오름길이긴 하지만 잘 조성된 산책로마냥 걷기 좋은 길이다. 3~40분여 정도를 오르면 능동산에서 내려오는 능선과 만나는데, 그곳에 쇠점골 약수터가 있다.

〈쇠점골약수터〉에서 목을 축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길을 걷는다. 산 아래 얼음골에서 올라오는 케이블카가 생긴 후부터 이 길은 인적이 많이 드물어져 호젓한 산행을 즐길 수 있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잠시 후 다시 만나는 능동산 아래 삼거리 즈음에서 능동2봉을 오르는 숲속 길을 택한다. 임도를 따라 걷는 것보다 울창한 숲속을 걷는 길이라 성가신 햇살을 피하기에 좋다.

능동2봉을 지나면 키 높이만큼 자란 억새 수풀을 헤치고 나아가야 한다. 그때쯤이면 만발한 억새꽃 사이로 가자산에서 운문산 억산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배내봉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으로 이어지는 장쾌한 영남알프스의 능선이 조망되고, 저 멀리 천황산의 반가운 모습이 아스라하게 보인다.

기다렸다는 듯 풀벌레의 울음연주가 은은하게 억새꽃을 흔들며 들려오고, 하늘도 구름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다.

가을, 그 바이올린 소나타 op.20

능동2봉을 지나 다시 임도와 만난 길은 샘물상회까지 이어진다. 숲이 사라지고 억새평원이 펼쳐진 길이다.

풀벌레가 잠시 숨죽인 사이 구름을 다 불러 모은 하늘이 마침내 연주를 시작할 모양이다. 구름의 현(絃)들이 불꽃의 화려한 빛살처럼 파란 하늘을 수놓고 있다. 바람이 억새꽃을 한번 흔들고 불어가자 하늘의 연주가 시작됐다.

길가의 야생화가 빨강거나 노랑거나 하얗게 감탄하고, 케이블카를 타러 가던 일단의 산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 박수를 치며 감탄을 터뜨린다.

샘물상회 앞 케이블카 삼거리에서 길은 또 숲으로 들어선다. 나뭇잎 사이로 언뜻언뜻 비추는 햇살도 다음 악장의 연주를 기다리며 숨죽인 숲. 하늘과 구름과 억새꽃의 연주에 감동하여 사뭇 들뜬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쉬었다간다.

숲이 끝나자 과연 하늘억새길이다. 어쩌면 선계를 향한 오



름길일까? 키 낮은 억새풀 사이로 난 나무계단 길 너머 저편으로 천황산의 돌탑이 보이고, 다시 들리기 시작한 풀벌레 소리와 어우러진 하늘과 구름의 연주는 어느새 절정으로 치달을 모양이다.

수목한계선을 지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경계의 길. 가파른 바위 벼랑의 아찔함과 드넓은 억새평원의 넉넉함이 공존하는, 어쩌면 황량한 듯 정겨운 듯 이어진 길을 걷노라면, 삼남금강(三南金剛)이라 불린 이름이 무색할 만큼 아름답고 광활한 영남알프스의 산군들이 그야말로 긴 병풍 속 수목화처럼 펼쳐져 보인다.

이미 절정에 이르렀지만 연주는 끝나지 않고, 하늘은 더 파랗게 구름은 더 하얗게……, 마침내 천황산이다.

하산은 뒤돌아 케이블카를 타고 얼음골로 내려가는 길이 가장 빠를 것이다. 필봉으로 길을 잡거나 한계암을 거쳐 표충사로 내려가도 된다. 지척으로 보이는 천황재로 내려가 재약산(수미봉)과 사자평으로 산행을 이어갈 수도 있고, 바로 표충사로 내려가거나 주암마을로 계곡을 탈 수도 있다. 아니면 원점회귀로 샘물상회 방향으로 길을 잡아 다시 임도를 걸어 배내고개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산을 내려오지 못했다. 서쪽하늘 노을 물든 천황산의 풍경 한잔에 취하여 쓰러진 후, 멈추지 않는 풀벌레와 하늘과 구름과, 그 너머 별빛이 켜는 지고이네르바이젠 바이올린 연주를 밤새 들었다. 

목수의 딸

김희자 수필가



습관처럼 이른 아침을 먹고 마당으로 나왔다. 상수리나무 우듬지에 해가 걸려 있다. 장독대 옆에 심은 장미와 수국이 터를 잡은 것 같아 달가워하며 행랑채로 들었다.

낡은 것으로 채워져 있던 고방을 손봐 책장과 소파를 넣었더니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 차를 마시며 사색하기 좋은 이곳을 설흘재雪屹齋라 이름 지었다. 책이 있고 예스러운 이 공간은 언니와 내가 마련했다.

향촌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며 사계절을 보냈다. 고향 집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와 행랑채로 되어있다. 목수였던 아버지는 터전을 시나브로 손보며 지키시다가 다시 못 올 길로 가셨다.



생활을 주로 했던 안채는 깔끔했지만, 농사를 그만둔 지 오래라 아래채는 창고 같았다. 쓰다만 살림살이와 농기구가 구석구석 쌓여 있어 몇 차례 정리했다.

달포 전, 외식업을 하던 언니가 가게를 접고 위안하러 고향에 왔다. 아침상을 마주한 언니가 대뜸 입을 열었다. 내가 사는 동안이라도 쓸 수 있도록 행랑채를 좀 손보자고 했다. 맞장구를 치는 날 보던 언니는 일단 한번 돌아보라며 아래채를 구석구석 살폈다.

“아버지가 뼈대 있게 손질해놓았네. 흙벽 튼튼하라고 시멘트까지 입혀 놓았고.”

“언니야, 우리 아버지는 목수였잖아. 그것도 대목!”

여기저기, 아버지의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손수 지은 창고 안에는 쓰다 남은 목재와 합판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용하던 연장은 한곳에 갈무리되어 있었다. 공사 때 사용했던 먹줄은 처마에 매달려 대롱거렸다.

“슬슬 시작해볼까.”

“그래, 우리는 목수의 딸이니깐!”

강단 있던 아버지를 닮은 언니가 소매를 걷어붙이자 나도 따라 장갑을 꼈다. 어릴 적 어깨너머로 봤던 걸 기억하며 일을 시작했다. 우선 창고와 방부터 정리했다. 쓸 것과 쓰지 않는 것을 골라 버리고 남겼다.

아버지의 애장품이었던 연장들이 녹슬었지만, 대패, 톱, 망치… 등으로 낡은 곳을 수리했다.

시작은 작은 습터 하나 마련하는 거였지만 일을 벌이고 보니 사방에 손 볼 곳이 보였다. 추녀 밑 서까래는 새까맣게 색바래있고, 천장에 구멍이 뚫려 빗물이 새

는 곳도 있었다.

태풍이 지나가며 마구 할킨 창틀은 제자리를 이탈해 찌그러졌다. 아버지께서 보수한 곳도 있었지만, 증조부님께서 터를 잡은 곳이라 세월의 흔적은 드러났다.

천장부터 보완하고 황토를 바르기로 했다. 같은 나무라도 작가가 보는 나무와 목수가 보는 나무는 다르다. 언니는 견재상을 했던 경험까지 있어서 일 눈이 달랐다.

우선 구멍이 뚫린 천장에 대나무로 뼈대를 만들었다. 황토가 잘 붙도록 잡쌀과 다시마 풀인 풀로 반죽하여 살을 뒀다. 공들여 발라놓은 황토가 밤중에 툭 떨어졌다. 다음날 다시 뼈대를 만들고 황토를 발랐다. 며칠이 지나자 천장에 뒹뒹 황토가 더는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말랐다.

비가 새는 지붕도 손봤다. 썩은 합판을 걷어내고 보관해둔 합판을 잘라 낡은 처마를 수리했다. 목수의 집이라 견재는 구하러 나가지 않아도 넉넉했다.

‘깡깡!’ 공사 소리가 연일 나자 이웃 사람들이 “무얼 하나?”며 기웃거렸다. 지나가던 큰집 오빠도 들어와 보시더니 “너거가 이런 일도 할 줄 아냐?”하며 혀를 내둘렀다.

장판을 깔고 황토에 어울리는 등을 달았더니 분위기가 살아났다. 몇 해 전까지 사용했던 아랫방 문살에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마루청엔 널빤지가 상하지 않도록 니스 칠을 했다.

아궁이가 있는 부엌을 그대로 살렸다. 세월의 흔적처럼 부엌에는 그을음이 까맣게 겨있었지만, 그 또한 멋이었다. 무엇보다 군불을 지필 수 있어 좋았다. 보름



동안 몸 품을 팔았더니 예스러운 사랑방이 되었다.

가을 태풍이 오기 전, 어머니께서 현몽을 꾸셨다. 꿈에 아버지께서 아래채를 짓고 계시더라고 했다. 아버지는 생전에 행랑채를 새로 지으려고 설계도를 그려놓으셨다. 공사할 계획까지 세웠으나 병마로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

유품을 정리하던 남동생이 머리맡 서랍에 있던 설계도를 발견했다. 목수였던 아버지는 낡은 아래채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다. 어머니께서 그런 꿈을 꾸어서 언니와 내가 이러는 게 아닌가 싶었다.

아버지는 마을의 새마을 운동 선구자였다. 오지에 살았지만 유식하고 한량 했다. 지게 지고 논밭으로 나가는 것보다 양복 차려입고 읍면으로 오가는 게 더 어울렸다.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역임하며 마을 발전에 앞장섰다. 셋길을 넓히고 다리를 놓아 마을로 오가는 차가 그곳으로 드나들고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우리 집에는 B도시에서 신문이 매주 왔다. 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신문을 보시며 넓은 세상과 소통했다. 일찌감치 세상에 눈이 열렸던 아버지는 정치, 경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어린 마음에 예리한 아버지 곁에 서는 것이 겁나 멀찌감치 떨어져 지냈다. 하지만 인정 많은 아버지는 호기가 끝내졌다.

보름 동안 행랑채를 단장하느라 언니와 나는 몸살이 났다. 몸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근사한 공간이 생겨 보람 있었다. 무엇보다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 만족했다.

멈추었던 패종시계를 손바 벽에 걸었더니 푹푹뚫

소리를 내며 가고 있다. 낡은 창틀에는 칠을 하고 예전에 사용하던 발을 달았더니 운치가 더해졌다.

오래전 서울 사돈네에서 보내온 발이라고 했지만, 발 표면에 그려진 그림이 일품이었다. 일곱 색깔 무지개가 푸른 동산 위에 떠 있고, 꽃과 나무가 있는 집이 그려져 있었다. 그 풍경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에도 무지개가 떴다.

차를 들고 소파에 앉아 차창 밖으로 시선을 둔다. 글을 쓰다가 눈이 피로해지면 실ؤل재로 나와 풍경과 마주한다. 투명한 창으로 밖을 보면 시야가 탁 트인다. 바깥 풍경이 보이는 저 문은 사색의 창이다.

창문을 통해 풍경을 들인다. 멀리 쪽빛 바다가 보이고 앞집 뜰에 붉은 감이 매달려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자연이 들려주는 화음을 감상한다. 이곳에 앉아있으면 자연 바람을 맞을 수 있고, 해 질 무렵 처마로 날아드는 새를 볼 수 있다.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에겐 창가에 스치는 새 한 마리도 귀한 풍경이다. 티 없는 하늘가에서 지절대는 새 소리, 넉넉한 가을풍경을 들이니 마냥 벅차다. 지금 내 영혼은 만추로 가는 길. 꿈을 꾸다는 건 이런 걸 두고 한 말일 테다.

설ؤل산의 가을을 보기 위해 미달이문을 활짝 연다. 해와 달, 별과 꽃이 새겨진 미달이문은 목수였던 아버지께서 안채에 있던 것을 아래채로 옮겨왔다.

이 또한 목수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아버지의 딸인 것이 자랑스럽다. 외벽까지 하얗게 칠했더니 새 옷을 입은 듯 행랑채가 살아났다. 그래, 우리가 누구인가. 목수의 피를 물려받은 딸이 아니던가. ✚



C.S. 루이스의문장들
깨어 있는 지성, 실천하는 삶
C. S. 루이스 지음 | 윤종석 옮김 두란노서원 |
2021년 12월 22일

책소개

우리가 사랑한 'C. S. 루이스'라는 언어
무더진 영혼을 버리는 그의 예리한 시선들! 장리를 넘나들며 펴먹이는 명문(名文)의 향연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의 작가 C. S. 루이스, 일상에 숨을 불어넣는 영성과 지성의 수폴로! C. S. 루이스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죄, 악, 자연, 성(性), 그리스도인의 삶, 기도, 믿음, 긍휼, 죄책감, 용서 등 기독교 신앙의 주요 주제들에 관한 폭넓은 저술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도발적이고 기발하며 통찰력 있는 지혜의 숨은 보화를 담고 있는 동시에, 현대 기독교에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친 한 위대한 인물에 대한 더없이 완벽한 소개서다. 단순히 재치와 지혜가 담긴 경구가 아니라, 루이스 특유의 사고 성향을 통해 빚어지고 채색된 개념을 실었다. 방대한 지식과 논리력에 상상력이 한데 어우러진 폭넓고 풍성한 앤솔러지!

[출처: 인터넷교보문고]

저자소개 | C. S. 루이스 (Clive Staples Lewis)

1898년 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생. 1925년부터 1954년까지 옥스퍼드의 모들린 칼리지에서 강의하다가, 1954년 케임브리지의 모들린 칼리지 교수로 부임하여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신앙을 버리고 완고한 무신론자가 되었던 루이스는 1929년 회심한 후, 치밀하고도 논리적인 변증과 명료하고 문학적인 문체로 뛰어난 저작들을 남겼다. 1963년 작고.
홍성사가 역간한 루이스의 저작으로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예기치 못한 기쁨』, 『천국과 지옥의 이혼』, 『헤아려 본 슬픔』, 『시편 사색』, 『네 가지 사랑』, 『인간 폐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개인 기도』, 『기적』, 『영광의 무게』, 『루이스가 메리에게』, 『피고석의 하나님』, 『루이스가 나니아의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숙고』, 『당신의 벗, 루이스』, 『순례자의 귀향』, 『세상의 마지막 밤』, 『실낙원 서문』, 『오독』, 『침묵의 행성 밖에서』, 『페렐란드라』, 『그가 공할 힘』이 있다.

[출처: 예스24]



리딩지저스
이안 더귀드, 조나단 김슨 저 |
웨스트민스터프레스코리아 | 2021년 12월 15일

책소개

《리딩지저스》 시리즈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도록 안내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본문만 골라 읽는 습관을 방지하고, 생각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주셨던 방식과 동일하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달은 제자들의 삶은 확연히 달라졌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을 설명해 주셨던, 엠마오 가는 길의 그 장면이 한국 교회 곳곳에서 재현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리딩지저스》 시리즈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한국어 신학연구 석사 과정(KMATs, Korean Master in Arts of Theological Studies, KMATS) 강의인 “구약성경과 그리스도”와 “신약성경과 그리스도”를 책으로 오롯이 옮겼다. 이번에 출간한 《리딩지저스》 1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는 이안 더귀드 교수와 조나단 김슨 교수가 강의한 구약성경 개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강의가 실렸다.
《리딩지저스》 각 권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성경 읽기’는 성도 개인이 성경을 읽으며 큰 흐름을 잡고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부 ‘성경 수업’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깊이 읽고 이해하도록 이끈다. 3부 ‘성경 나눔’은 소그룹 모임에서 한 주간 읽은 성경 내용을 나누며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으로 총 6권으로 이어질 《리딩지저스》 시리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100년 가까이 추구해온 그리스도 중심의 건강한 신학을 삶과 일터에,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출처: 예스24]

저자소개 | 이안 더귀드 (Iain Duguid)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여러 곳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작은 교회를 개척해 매 주일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다. 성경 원어에 관한 탁월한 주해와 명확한 글쓰기를 기반으로 'NIV 적용 주석', 'ESV 강해 주석'을 비롯해 묵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주석을 집필했다.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구약학 교수이자 온라인 과정 학장으로 섬기고 있다.

[출처: 예스24]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오랜 기간 많은 선교사들이 어렵게 이뤄놓은 것들 위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짧은 의료봉사를 더했을 뿐이지만,
현지의 아이들이 해마다 더욱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언젠가 그러했듯이
그들의 삶의 목적도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대로를 간직한 아마존.
현지인의 삶이 고단해 보인 것은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

문명을 누리지 못했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이 척박한 땅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 참으로 아름답다.

반갑게 인사하는 현지인들과 새 소리, 바람 소리.
편리함과 먼 곳에서 오히려 심을 선물로 받는다.

막상 장비가 있어도 수술이 어려운 병을 발견하면 걱정이 앞선다.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수술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일단 수술을 한다 해도 나중에 이 환자를 누가 돌봐줄지.
때로는 께멜 실이나 소독 장갑이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렇게 치열하고 힘든 순간들을 겪다 보면 잊었던 진리가 떠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이들이 오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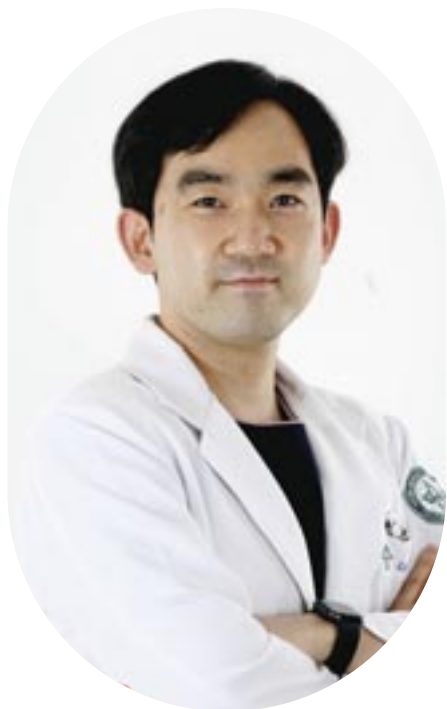
예수를 전하고 그분의 영광된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고신's 스토리


 구유진 기자기독교보

환자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의사



최진혁 교수·유방외과

주치의 같은 유방암센터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유방암센터는 유방암 진단부터 치료와 수술까지, 안타깝게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해 환자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의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이 세분화된 분과로 운영하고 있죠. 외과에서 수술하고 나면, 내과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우리 유방암센터는 이제 전국에서도 몇 남지 않은 곳이죠.

유방암센터를 소개하는 최진혁 교수(유방외과)에게 유방암센터를 향한 더없는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학병원에서 한 번이라도 진료를 받았다면, 보통 '주치의'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진료 시간을 예약했지만, 넘겨버리기 일쑤인 뻘뻘한 외래 진료 중 환자가 의사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몇 분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최진혁 교수가 유방암센터에 남다른 애착을 갖는 이유는 바로 '대학병원'과 '주치의'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유방암센터가 주치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치의라는 개념이 모호해져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병에 관한 모든 의뢰서비스를 감당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저희 환자들은 유방이 아닌 다른 곳이 아프셔도 여기로 오세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치료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 이상은 다른 과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 주치의라는 마음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맺고 치료하는 시간이 좋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담도 많이 되곤 합니다. 제가 나이가 적지 않지만, 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 혹시 제가 실수하거나 모르는 부분을 놓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치료하려고 합니다. 환자가 저한테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최 교수의 이런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환자의 서울 대형병

원 쏠림현상이 심화하는 현실 때문이리라. 지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환자 본인의 결정에도 가족들의 반대가 있거나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최진혁 교수는 유방암센터 최 교수를 찾아온 환자가 후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의사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많진 않음을 알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제가 치료하고 수술한 환자가 부작용 없이 회복되면 좋겠다는 기도가 단순히 저를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걸 환자들도 아시더라고요.

환자분이 원하시면 수술 전에 기도해드리는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신대복음병원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최진혁 교수는 최근 주일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기적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암 환자들은 늘 절망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치료를 잘 해도 암 환자 중 누군가는 재발하고 누군가는 전이 되고 누군가는 돌아가시니까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낮게 해달라는 기도를 잘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아니까 혹시라도 기도하고 나서 환자가 기대하진 않을까? 암 환자 중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 그분에게는 제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일 수 있으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고민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지 물으면, 의사가 나를 포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거든요.

제가 수술하고 치료한 환자 중 한 분이 최근 우울증과 가정사로 힘들어하셨는데, 환자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손을 잡고 기도하게 됐죠. 큰일도 아닌데 환자분이 무척 좋아하셨고 요즘은 회복 속도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는 수술실에서 메스를 들기 전,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수술하지만,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수술 과정은 치료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의사라고 흰 가운을 입고 있지만, 이 작은 암 덩어리조차 정복할 수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말יי죠.

예전에 혈기 왕성할 때는 이미 치료 과정은 정해져 있고 수술도 자신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니 의지가 되고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병을 보지 말고 환자를 보는 의사

저의 신조는 병을 보지 말고 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자는 거죠. 병만 보면 병을 치료할 순 있겠지만 환자의 마음마저 헤아리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명의는 병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신대복음병원에는 좋은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같이 잘 배워가고 싶습니다.

최진혁 교수는 환자의 질병만 보는 의사가 아닌,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믿음의 의사가 되겠노라 다시금 다짐합니다. ✞



나의 하나님

 김혜민

수 많은 날들을 살아오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었다. 그러하기에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에 대한 고민은 마치 내게 풀어야 할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다.

삶의 순간 순간, 나는 기독교인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갈등해야 했다. 어떨 때는 잡히지 않는 공허한 이름의 하나님처럼 그분이 느껴졌고 어떤 때는 무력한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번민했고 방황했다.

어떤 때는 내 옆에 참위로자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옆에 계셨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삶의 순간 순간 느껴지고 보여졌던 하나님을 말해보려고 한다.

중학교를 들어갈 무렵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우리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가정의 심적인 모든 부분을 위축시켰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나의 어머니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바라셨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음을 억울해 했고 원망했다. 처음에는 이렇게도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정성과 노력을 아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주실 수 없다. 그러하기에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은 금방 해결되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집안의 형편은 나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만 풀려가지 않았다. 어머니께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려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어머니의 말씀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나의 기도를 무시하며 응답하지 않고 철저히 침묵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 할 수 없었다.

중,고등학교 내내 나의 하나님은 무엇일까 고민했다. 나와 관계있는 하나님이 과연 있거나 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다. 어머니의 반강제적인 요구로 인해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 없는 교회 땅 밟기에 불과했다.

대학교 2학년이 될 무렵 교회 고등부 보조교사를 맡아달라고 목사님께서 제안하셨다. 나는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권유도 있고 해서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다.

목사님과 같이 1년 동안 교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이 사재를 털어 불쌍한 아이를 돕고 그 조차도 도와 줄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의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을 위해 울어주고 그를 위해 도울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보았다.

가장 열심히 뛰고 달리면서도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미안해하는 그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한쪽 구석에 놓았던 하나님 그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곤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다. 그는 가난한자의 친구였다. 그는 외로운 자의 친구였다. 그는 약한자의 친구였다. 나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의 무관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그러한 모든 고통을 짊어져 주시며 오늘 나에게 그런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나는 조그마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신이 아닌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것처럼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

나는 그 목사님으로 인해 도전 받았다. 것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다. 나는 다시 주님께 무릎 꿇었고 나는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가운데 받아들였다.

나의 하나님의 인식은 아직 깊지 못하고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의 인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나의 하나님의 탐구와 이해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며 나의 목표에 방향성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트만처럼 “희망이신 예수님”을 회구하며 본 회퍼와 같이 “사회에 책임”을 갖고 행동하고도 싶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내 것이 되고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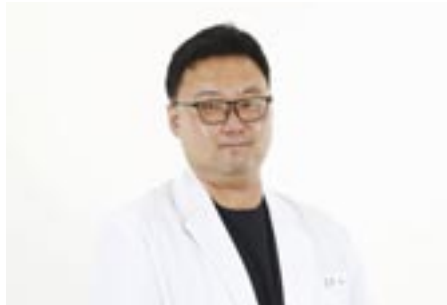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말처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여 결국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인식한 하나님 결국에는 진정한 내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며 섬기고 그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Focus View



유방외과 이희승 교수,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우수구연상 수상



고신대병원 유방외과 이희승 교수가 대한외과초음파학회의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2022년 5월 15일 서울 삼성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무세 포동종진피를 이용한 체적 대체 중앙성형 유방보존술 후의 초음파검사소견(Ultrasonic findings after volume replacement oncoplastic breast conserving surgery using acellular dermal matrix)'이란 내용을 발표하여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에서 양쪽 유방의 대칭적으로 만들고 자연스러운 유방모양을 만들어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주는 최신 수술 방법인 체적 대체 중앙성형 유방보존술을 시행하고 유방암의 국소재발을 추적경과관찰 할 때 유용한 초음파소견과 횡파 탄성 초음파를 이용한 연구계획을 발표했던 것이 수상의 배경이 됐다. 고신대병원은 지난해 7월에도 서울국제중앙외과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며 지역의 대학병원으로써 전국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2022.05.18.]

암, 통증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암 통증캠페인 열어 암 환자들에게 치료 자신감 부여



고신대병원은 5월 25일 장기려기념센터 1층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등을 대상으로 암성통증 캠페인을 실시했다. 암성통증이란 암 환자가 겪는 통증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말로 많은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암 때문에 일어나는 격심한 통증, 암의 진전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침윤, 폐색, 조직의 괴사 등이 통증의 원인이 된다. 암환자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점이 통증으로 90%이상 조절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편견을 극복하고자 통증 캠페인 이 전국의 60여개 기관에서 열린다.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된다? 강한 진통제를 미리 쓰면 나중에 쓸 약이 없다? 등의 OX퀴즈를 통해 통증의 오해와 진실을 알리고, 통증안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정원길 교수)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입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05.25.]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고신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2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진료환경 개선 및 의료관련 감염예방 등을 통한 환자안전 중심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한 제2차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84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신생아중환자실 입·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전문 인력·장비·시설 구비율을 보는 '구조영역',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영역', 48시간 이내 재입실률을 평가하는 '결과영역' 등 3가지 영역으로 이뤄졌다. 고신대병원은 '과정영역'에 해당하는 ▲전문장비 시설 구비율 ▲감염관리 프로토콜 구비율 ▲중증도평가 ▲신생아 소생술 교육 이수율 등 총 8개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했고 종합점수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92.36점을 획득했다. 고신대병원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 센터로 지정받았다. [2022.05.26.]

Focus View



개원 71주년 맞아 세계적 핵의학자 김의신 박사 초청 강연회 개최



고신대병원은 개원 71주년을 맞아 병원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핵의학자 김의신 박사를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1980년부터 MD앤더슨 암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최고의 의사(The Best doctors of America)' 자리에 11차례나 오른 김의신 박사는 '암의 방사면역 검출법' 개척자이자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의 대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이날 건강과 행복(암은 정복 될 수 있을까?)이라는 주제로 1시간 가량 열정적인 강의를 한 김박사는 "지방을 대표하는 핵의학, 마중물이 되어주는 치료방사선학 병원에서 후학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강의 말미에서 김 박사는 젊은 의사들에게 "각자의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융합의학적 차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할 것을 권했다." 또한 "고신대병원의 암 치료에 대한 열정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일반 참여자들에게는 암에 대한 정보를, 젊은 의사과학자들에게는 암 정복에 대한 도전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2022.05.27.]

고신대병원-인도 Midwest병원 간 공동협력 및 학술교류 MOU 협약식 개최



고신대병원이 인도 미드웨스트병원과 6월 2일 장기려기념암센터 회의실에서 한국과 인도 양국 의료기관간 보건의료 교류와 인력교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을 방문한 인도 아산술 미드웨스트병원(이사장 수짓 쿠마르 우파드하이) 방문단은 한국 방문 일정 가운데 병원으로는 유일하게 부산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방문해 MOU를 체결하고 서울, 수도권 등의 의료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방문한다. 이번 인도 미드웨스트병원 방문단의 부산 방문은 코로나 유행 전부터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팬데믹으로 2년간 연기되어 이뤄지지 못하다가 워드코로나로 하늘길이 열려 성사되었다. 부산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해외거점센터와 원격진료 센터를 통해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고신대병원은 십수년전부터 카자흐스탄, 러시아, 베트남, 중국 등 부산을 찾는 해외 의료관계자 방문단의 필수 방문코스인 아시아허브병원을 지향하여 연구·치료, 의료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06.02.]

15년 넘게 페루의료봉사 헌신한 의사,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호스피스 센터장으로 환자들을 섬겨



15년에 넘게 매년 휴가를 반납하고 3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남아메리카 페루의 이퀴토스 지역에서 의료봉사에 헌신한 인물이 있다. 고신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맡고 있는 신성훈 센터장(혈액종양내과 교수)의 이야기다. 신성훈 센터장은 고신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선임교수로 항암 약물치료의 권위자이다. 고신의대를 졸업하고 코이카 한국-페루 제2 협력병원에서 국제협력의사로 근무했으며,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내 서포티브 케어 센터 교환교수를 역임한 전문가로 의술과 인술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신 교수는 코이카 복무 후에도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인휴가를 반납하고 페루 이퀴토스 지역을 찾아 봉사를 펼쳤다. 미국 교환교수 시절에도 페루 지역 의료봉사를 거르지 않고 참가했고 이러한 신 교수의 헌신은 페루 이퀴토스 지방정부와 지역의 의과대학교와 병원 등과도 협약을 맺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의료봉사가 어려워지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을 맡으며 호스피스병동 환자들 케어에 열정을 쏟고 있다. [2022.06.08.]

Focus View



이비인후과 이환호 교수, ‘치매를 예방하는 건강한 걷기’ 건강강좌 개최

-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웰니스센터 입주민대상 건강교실 실시



고신대병원은 6월 14일 오후3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웰니스센터 입주민을 대상으로 '2022 스마트 건강교실'을 개최했다. 이비인후과 이환호 교수는 스마트한 건강생활을 위한 운동법으로 '걷기'를 소개하며, 건강한 걷기 운동을 통한 치매 예방효과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환호 교수는 “건강한 걷기 운동은 치매예방과 인지기능 개선에 가장 중요한 비약물적인 치료법”이라고 설명하며 “하루 1만보 이상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라고 걷기운동의 중요성을 입주민에게 설명했다. 걷기 운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세를 바로 하고 파워워킹을 해야 한다. 많은 걸음걸이(보행수)보다 보폭을 넓혀 빨리 걸어야 운동효과가 크다. 걸을 때는 먼 곳을 바라보듯이 고개를 곧게 세우고 걷는다. 보폭이 넓어지면 전신을 이동시키는 힘이 세져 운동량이 증가한다. 보폭을 넓히는 올바른 방법은 고간절을 중심으로 다리를 앞쪽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샌디에이고 대학에서 어지럼증과 귀질환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자타가 공인하는 귀 전문의사다.

[2022.06.15.]

개원 71주년 기념식 개최

- 오경승 병원장 상급종합병원 재진입을 통한 도약하고 발전하는 병원 될 것



고신대병원은 개원 71주년을 맞아 6월 16일(목) 오전 8시20분 병원 1동 3층 예배실에서 기념예배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고려학원 유연수, 신수복 이사, 고신대학교 이병수 총장, 오경승 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1부 기념예배에서 기도 순서를 맡은 학교법인 신수복 이사는 “교직원들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설립 가치대로 병원을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를 맡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유연수 서기목사는 “개원 71주년을 축하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하는 병원임을 구성원이 믿고,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소망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고신대학교 이병수 총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함께할 때 가능할 것”이라며 “벽을 넘을 수 있는 무한한 자원과 힘이 복음병원에는 있음을 믿고, 끈질기게 이어나가 목표를 이루는 복음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2022.06.16.]

고신대병원 장기이식센터·이식연구소 개소2주년 세미나 개최



고신대병원은 6월 16일 오후 병원 장기려기념암센터(6동) 5층 대강당에서 장기이식센터(소장 임학), 장기이식연구소(소장 신호식) 개소 2주년 기념예배 및 세미나 행사를 가졌다. 고신대병원 장기이식센터와 고신의대 장기이식연구소는 2020년 6월에 문을 열어 신장·간이식을 중심으로 활발한 이식수술과 많은 연구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고신대병원은 1983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인공신장실을 개소했으며, 1984년 12월 6일,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최초로 신장이식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690례 가까운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고신대병원 간이식팀은 2014년 첫 생체간이식 수술을 성공한 이후, 2016년에는 부산지역 최초로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수술에 성공하였고 현재까지 70례 가까운 간이식수술을 시행했다. 연구소는 운영위원회, 병설 연구센터 등을 운영하며 미국, 캐나다, 서울의대 등 국내외 자문위원을 위촉 및 학술행사 진행을 통해서 활발한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의과대학 임상 및 기초 교수가 참여하는 국책과제를 유치하여 이식기초연구도 진행 중이다.

[2022.06.20.]

Focus View



오경승 병원장, 제16회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 종합대상 수상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가 주최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하는 '제 16회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 시상식에서 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이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6월 23일(목) 저녁 6시 서울 강남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 16회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상은 그동안 수도권 탑5 병원등 경쟁한 병원들이 수상한 바 있다. 오경승 병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부산지역 의료기관에서 가장 먼저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삼성전기, 삼성자동차와 같은 지역 대기업에 코로나 백신 접종 인력을 파견하는 등 의료인력의 유출을 감소하면서도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다. 또한 수년전부터 해외거점 병원을 통해 준비한 비대면 원격의료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비대면 의료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022.0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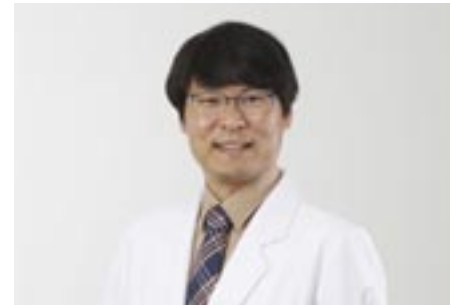
고신대병원, 「지역거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부산시 성과교류회 개최 창업, 기술이전 및 개발 의료기기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 등 초과 성과 달성



고신대병원은 6월 30일 오후 4시 영도 라발스 호텔에서 「지역거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의 부산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주관하는 「지역거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7년차 미만의 젊은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고, 연구환경 인프라 조성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얻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2019년부터 전국 8개 병원이 선정되어 50여억원의 사업비로 4년간 진행되고 있는 국가 지원사업으로, 부산시도 시비와 행정을 지원하고 고신대병원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다. 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길지 않은 사업기간임에도 불구하고 SCI논문(23건), 특허출원(12건) 및 등록(1건), 기술이전(2건) 등 전 항목에서 당초 세워뒀던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한 <부갑상선 진단의료기기>가 美 FDA승인을 목표로 글로벌 임상시험(UCLA) 진행 중에 있어, 부산 의사과학자들의 잠재된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07.01.]

60억 대형과제 수주...환경성 질환 예방 나선다



고신대병원 옥철호, 김희규 교수팀은 최근 환경부가 발주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 개발사업인 총 연구비 60억 원의 대형과제를 수주, 2026년 12월까지 5년간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옥 교수팀은 '유전체 분석 기반 환경성질환 민감성 예측기술 개발'이란 제목의 과제를 통해 환경성질환 및 관련 유해인자 등 단일 유전자 변이에 의해 일어나는 고전적인 유전병을 제외한 생활습관병, 환경질환을 대상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유전적 경로 및 관련기능을 규명하고 질병예측 진단 키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려대과 NHN cloud와 사업단을 구성해 5대 환경성질환(아토피·천식·치매·부경맥·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고신대복음병원은 5대 환경성 질환 중 아토피, 천식과 환경성 질환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정보센터와 함께 700명의 취약계층, 다문화,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고신대 옥철호 교수는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2022.07.04.]

Focus View



고신대병원, 울산대병원과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고신대병원은 울산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과 부울경 지역 의료발전을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7월 13일(수) 오전 10시 울산대병원 본관 5층 부속운영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고신대병원에서는 오경승 병원장과, 최중순 기획조정실장 및 간호부의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국민보건과 부울경 지역 의료 발전에 큰 틀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히 의료 융합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보건의료 빅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임상 및 기초 분야의 공동 연구와 학술활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울산지역 의료기관의 핵심으로 울산대병원이 부울경 지역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 지역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동남권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우리가 경쟁구도에서 한발 물러나 상생하고 지역의 보건여건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2.07.13.]

학대아동 치료위해 케이이엠솔루션, 고신대병원에 기부 선행



케이이엠솔루션이 고신대병원에 8년 동안 매년 1천만원씩 8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고신대병원은 7월 18일(월) 병원 7층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케이이엠솔루션 정성수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 대표는 2015년부터 학대아동 시설입소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고신대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학대아동 의료비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 후원금을 약정해 기부해왔으며 5월까지 집계된 금액은 8천만원에 이른다. (주)케이이엠솔루션 정성수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대아동에게 조그만 보탬이 되기 위해 고신대병원을 통해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8년째 지속적인 기부를 할 수 있어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복음병원이 장거리 박사님 때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 정신이 계속해서 이 사회를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매년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2022.07.19.]

해양경찰정비창 찾아가는 건강강좌 진행



고신대병원은 7월 28일 해양경찰정비창을 찾아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및 소음성 난청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경비창 직원 및 수리함정 경찰관을 대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처치와 보호법이 다뤄졌다. 또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와 요주의자를 참석시켜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유해성, 발생원인 등 추후 예방 대책까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력을 보호하는 계기가 됐다. 강의를 맡은 고신대병원 직업환경보건학과 오현철 교수는 직원들과 의료 상담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사고 초기 심폐소생술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며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상식 창장은 “전문적인 사고예방 교육과 상담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해 건강하고 안전한 정비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올해 3월부터 고용노동부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직업환경의학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임상 진료과 등과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2.07.28.]

Focus View



고신대병원, 한국남부발전(주)·산업부·사하구청 등 6개 유관기관과 안전캠페인



고신대복음병원이 한국남부발전(주)과 함께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민·관·공 재난대응협의체 6개 유관기관이 함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고신대병원과 남부발전은 2017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근 유관기관과재난대응훈련, 안전캠페인 활동 등 재난 안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시 사하구청, 사하소방서, 사하경찰서 등이 함께했다. 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과 함께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여러 공공기관이 뜻을 모아 온열질환과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신대병원과 남부발전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부산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용 부채·물티슈·냉방용품 등을 나눠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코로나19 대응 사례 백서, 온열질환 예방요령을 홍보했다.

[2022.07.30.]

뇌졸중 평가 100점 만점, 골든타임 지키다.

- 심평원 발표 전분야에서 만점받아 1등급 9년연속 유지



뇌혈관 질환은 2020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통계청)로 사망률과 장애 발생을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또한 매년 환자수와 진료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뇌졸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골든타임(증상 발생 3시간 이내) 안에 내 주변 가까운 병원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06년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뇌졸중 9차 적정성평가는 2020년 10월~2021년 3월까지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233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고신대병원은 평가 전 항목에서 만점인 100점을 받았으며, 적정성 평가 지표는 ▲전문인력 구성여부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운영 여부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 이내)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 이내) ▲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 전)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심방세동 환자) ▲입원 중 폐렴 발생률 등 9개다.

[2022.08.01]

고신대병원-부산외대, 스마트헬스케어 및 국제진료 분야 상호업무협력협약 체결



고신대복음병원이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연구·지역사회 기여 활성화를 위한 상호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8월19일 개최된 협약식에서 양기관은 ▶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기술개발 및 연구 협력 ▶공동인력 양성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운영 ▶진료 및 건강검진 ▶ 국제진료 사업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고신대병원은 다양한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국책과제를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외대의 IT 육성 및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연구에도 공동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외국어 특화 기관인 부산외대는 고신대병원의 국제진료사업에도 재학생 의료통번역지원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가독교 사립대학으로 부산외대와 고신대병원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마트헬스케어 산업과 국제진료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8.22.]



외래진료시간표

(2022년 9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간내과 990-6101	이상욱	●				●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윤병철		●	●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식도정맥류
	서광일			●		●	●	●	●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이식, 간부전
	박현준	●		●	●			●	●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정욱	●	●	●	●	●		●	●	●	●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심장내과 990-6105	차태준	●	●	●	●			●	●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 세포심장학
	허정호	●			●	●		●				심혈관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김현수		●	●		●		●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대동맥질환, 심부전
	임성일	●				●	●	●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김봉준		●		●			●		●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
	김수진			●			●				●	심장초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내분비내과 990-6102	최영식	●			●	●	●	●				내분비(당뇨, 갑상선, 호르몬)질환
	권수경		●	●				●	●	●		내분비(당뇨, 갑상선, 호르몬)질환
	김부경	해외연수										
	박태훈		●								●	내분비(당뇨)질환
혈액종양내과 990-6107	신성훈						●		●		●	두경부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이호섭		●	●	●			●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은미		●			●		●			●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다정	●				●			●	●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정현엽	●		●			●			●		혈액종양내과 일반진료
소화기내과 990-6103	박선자	●	●	●	●	●	●	●	●	●	●	궤양, 물혹,암,염증 신경
	박무인	●	●	●	●	●	●	●	●	●	●	궤양, 물혹, 암, 염증, 신경, 기능성위장관질환, 소화기암
	문 원	●	●	●	●	●	●	●	●	●	●	크론병, 궤양성대장염클리닉, 소화기질환
	김성은	●	●	●	●	●	●	●	●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질환, 위암, 식도암, 소화기질환
	김재현	해외연수										
	정경원	●	●	●	●	●	●	●	●	●	●	치료 내시경 (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칼라지아 (POEM), 위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손민영	휴 진										
호흡기내과 990-6104	정만홍				●					●		폐암, 천식, 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태원	●				●	●	●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옥철호			●			●		●		●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제훈	휴 진										
	김지원		●								●	폐암, 결핵, 간질성폐질환, 폐렴
신장내과 990-6108	임 학	●				●	●	●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 혈액혈불일치이식, 뇌사이식)
	정연순			●	●			●	●		●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 (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다낭콩팥병클리닉 진료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신호식	●	●			●	●		●	●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진료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김예나		●	●	●					●		신장질환
	이나겸										●	신장질환
방사선종양학과 990-6395	박경란	●					●	●	●			유방암, 간담췌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선영		●			●	●			●		유방암, 부인과종양, 하부소화기종양
	최지훈			●	●	●			●			두경부암, 폐암, 흉선종, 식도암,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유제상	●	●		●					●	●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마취통증의학과 990-6267	류시정	●						●				통증관리
	김두식			●					●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 암성통증관리
	강동희				●					●	●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부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김지옥					●	●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성형외과 990-6131	박진형	●	●						●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이형석	해외연수										
	김홍일					●	●				●	미용, 수부외과, 미세수술
	김윤수			●	●					●		미용(코 성형), 유방 재건 및 유방 성형, 체형 성형(비만), 피부암 및 거대 모반(소아), 흉터 성형, 육창, 안면외상
	전공의							●				
재활의학과 990-6156	김기찬	●		●					●			뇌졸중, 노인재활, 골다공증, 암재활
	정호중		●			●	●			●		척추손상 재활, 경직치료 재활
	심영주		●			●	●	●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근골격계 질환, 암재활
	이재현	●		●	●				●		●	근골격계재활(어리통증, 목통증, 어깨통증, 디스크 및 관절질환), 척추시술클리닉, 초음파시술클리닉, 심폐재활, 위상성 뇌손상, 연하재활
정형외과 990-6130	손정환										●	슬관절부병변, 관절염
	권영호	●					●					미세수술, 수부병변
	정소학			●				●				근골격계종양
	김창수		●			●				●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김지연	●					●					족부(발, 발목)질환 및 스포츠손상, 당뇨병성 족부질환
안과 990-6140	이상준		●		●			●				망막, 포도막, 백내장, 안외상, 눈물길 유리체망막클리닉, 포도막염클리닉
	이승욱	●				●			●			녹내장, 백내장, 각결막질환
	김창주	해외연수										
	임재완			●			●			●		망막, 포도막, 유리체, 백내장, 녹내장
가정의학과 990-6155	최종순			●				●	●		●	비타민 고용량요법, 암의 보완통합 요법, 특이증상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완화의학, 노인의학
	공은희	●				●	●					암생존자 통합 건강관리, 임상영양, 가족건강관리, 금연, 기능의학
	강지훈		●		●			●		●		암 경험자 평생 건강 관리, 성인예방 접종, 금연 클리닉, 유전체 기반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노인의학
	배설연					●				●		가정의학과 일반진료
핵의학과 990-6660	전성민		●				●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김희영								●			핵의학과 일반진료
	김범수				●						●	핵의학과 일반진료
정신건강의학과 990-5070	김호찬	●	●				●	●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재발방지클리닉 및 낮병동 (조현병, 기분장애)
	이상신	●				●				●		자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이윤나			●	●						●	우울증,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일반 ※기분장애 클리닉 진료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김현석			●	●			●	●			소아청소년정신의학 (ADHD, 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불안장애 등) * 성인기의 소아청소년정신장애 (성인 ADHD, 성인 발달/지적장애) 및 보호자 교육 : 매주 목요일 오후
산부인과 990-6120	김원규			●	●					●	●	부인암, 종양, 부인질환,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단일공수술
	이태화	●	●			●		●				부인암, 부인질환, 내시경수술, 고위험 산모
	오영림	●					●	●	●			부인질환, 산과
	윤향구			●						●		모체태아의학, 고위험 임신, 조산, 로봇수술
	강태경		●	●		●	●		●	●		부인암, 부인질환, 부인과 감염질환, 호르몬요법,내시경수술,로봇수술
위장관외과 990-6182	윤기영	●	●					●				식도, 위장,복강경 위장관 수술 (위암,위식도역류질환,위장관 기질 종양)
	서경원			●	●	●						복강경 위장관 수술 (위암, 위식도역류질환), 대사비만수술, 탈장수술
	김기현						●			●	●	복강경 위장관 수술 (위암, 위장관기질종), 대사비만수술
	김윤홍								●			위장관외과 일반진료



외래진료시간표

(2022년 9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두경부, 갑상선 내분비외과 990-6113	김구상				●						●	갑상선암, 갑상선양성질환, 고주파열치료 ※고주파열치료클리닉:금요일 오후※
	양승이	●	●			●		●	●		●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갑상선수술, 부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클리닉:금요일 오후※
	이지은			●			●			●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로봇수술, 최소절개수술
유방외과 990-6113	김구상	●	●			●	●		●			유전성 유방암,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유전성유방암클리닉: 월 오전 / 유방암경험자클리닉: 수 오후※
	최진혁	●			●			●		●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중앙성형클리닉: 목 오전※
	정성의			●	●		●	●		●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젊은유방암클리닉: 화 오후※
	이희승		●						●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대장항문외과 990-6181	안병권			●				●				대장, 직장암, 대장항문클리닉
	이승현	●	●			●	●		●			대장항문클리닉
	이승훈				●					●	●	대장, 탈장, 복강경로봇수술
간담도췌장외과 ·이식외과 990-6112	신동훈	●	●					●				간, 담도, 췌장, 이식외과
	최영일	해외연수										간이식, 간담도, 혈관, 간담췌클리닉
	문형환					●	●		●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조지훈				●	●				●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응급외과 990-6359	정주원			●								응급외과
	이철민							●				응급외과
	김영식						●					응급외과
알레르기내과 990-6152	김희규	●	●			●		●	●			만성기관지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약물 알레르기, 호산구증가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최길순			●	●		●			●	●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비뇨의학과 990-5078	류현열	●				●						요로종양, 전립선, 신장이식
	최 성		●	●				●	●			전립선, 여성비뇨기, 종양
	김택상	●					●			●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강수환	해외연수										로봇수술, 결석
홍부외과 990-6127	서원태				●					●		비뇨기계 일반질환
	박성달	●						●				일반홍부,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김종인		●	●	●							일반홍부,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하지정맥류, 흉부외상
	조성호				●	●	●					성인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말초혈관질환
	이해영	●	●					●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성인심장질환, 홍부외상
	고택용						●		●	●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홍부외상, 일반홍부
	이상호			●							●	성인심장, 중환자, 외상
신경과 990-6106	유봉구	●		●	●	●						뇌졸중, 치매, 두통
	김명국		●		●	●		●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김민정									●	●	운동장애, 파킨슨
	허소영		●				●	●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말초신경병, 근육병
	이진형			●			●			●		뇌졸중,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치료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990-6136	이강대	●						●		●		갑상선 수술, 부갑상선 수술, 신경모니터링 수술
	이환호		●					●				이과 질환/만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어지럼증, 이명, 난청, 인공와우이식
	권재환				●	●				●		비과, 중이수술, 안면외상성형
	이형신	●			●	●						갑상선암, 구강암 (설암), 인두암 (편도암, 하인두암), 후두암, 목의 혹, 침샘질환, 음성장애
	김주연		●	●				●				일반이비인후질환,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질환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무호흡증, 코성형 클리닉
	김영준						●				●	일반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990-6123	김서빈										●	일반 이비인후과
	홍유라				●			●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정유진						●			●		미숙아 및 신생아 질환 (신생아 발열, 신생아 황달, 저체중 출생아, 자궁내 성장 지연, 과체중아, 무호흡,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신생아 일과성 빠른 호흡, 태반혈관 증후군,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기관지폐렴성 이상, 신생아 감염, 신생아 dimple, 배꼽 혹아칭),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
	이정현		●				●		●			성장클리닉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사질환 (고신장, 시츄키 지언,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갑상 및 인 대사 장애, 기타 영양 장애)
	연구민	●					●				●	소아신경질환 (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공섬김	●			●			●			●	소아혈액종양질환 (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정민영		●	●				●				소아 알레르기질환(식품알레르기, 경구면역치료, 중증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천식/비염 면역치료, 약물알레르기, 만성두드러기), 소아 호흡기질환(만성기관지염, 폐렴, 간질성폐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관리 등), 중환자의학
	최소윤			●			●				●	소아소화기영양분과 (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췌장),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저체중, 소아위장관내시경)
	전공의				●			●				
신경외과 990-6124	박용석	●	●				●	●				뇌혈관, 뇌종양
	조혁래	해외연수										뇌종양, 두개저종양,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박정현			●	●			●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박민철			●	●				●			신경외과 척추질환, 척추 및 두부 외상
	김도연	●					●				●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심용우						●				●	신경외과 일반질환
피부과 990-6146	장민수	●	●				●	●				여드름/주사, 건선, 피부미용, 손·발톱색소질환
	서기석									●	●	피부암, 무좀 및 진균성질환, 모발질환, 수포성질환 및 결체조직질환, 혈관질환
	박종빈			●	●			●	●			피부와 일반질환, 피부종양, 알레르기피부질환
	장지윤	●									●	피부와 일반질환
일반내과 990-6359	전공의	●	●	●	●	●	●	●	●	●	●	피부와 일반질환
	김혜주	●		●	●	●		●	●	●	●	일반내과 일반질환
호스피스완화의료과 990-6359	정원길	●		●		●		●		●		호스피스 완화의료
류마티스내과 990-6154	김근태		●	●			●				●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건선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통풍, 골관절염, 섬유근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초염파라클리닉
	김윤경	●						●	●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관절초염파라클리닉
감염내과 990-6157	이진영				●				●		●	감염내과 일반질환
	전민지	●					●				●	감염내과 일반질환
	진 술			●				●	●			감염내과 일반질환
치과 990-5150	김희진	●	●	●			●	●	●	●	●	치과보존과 일반질환
	서고은	●					●	●			●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구강내 종양,외상,임플란트,매복치,턱관절 질환 및 기타 치과 질환)
	강은숙			●	●	●				●	●	치과 일반질환
직업환경의학과의 990-6742	김정원	●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 (천식, 피부),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지현			●	●					●	●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현숙	●	●					●	●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오현철	●						●		●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KOSin 사랑in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당신은 사랑in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교직원들은故장기려 박사님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국내·외 경제적 빈곤한 환우들의 치료에 힘쓰고, 의료 활동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섬김의 자세로 다가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 저희들의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비밀스런
생명의 신호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몸의 소리를
듣는데부터 시작합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